



先進化·국제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II. 開放化의 필요성과 基本方向

### 1. 開放化의 필요성

賦存資源이 아주 빈약하고 資本축적 역시 거의 全無하였던 戰後의 우리 經濟가 지난 20년간 刮目할 만한 成長을 이룰 수 있었던 가장 큰 理由로는 우리가 對外지향적인 開放化 경제정책을 推進하였다는 事實을 지적할 수 있다. 앞으로 우리 經濟의 開放化는 계속 推進되어야 할 必要性이 있는데 그 理由는 다음과 같다.

첫째, 經濟의 開放化로 狹小한 國內市場의 制限을 克服해야만 지속적인 經濟成長이 가능하다는 사실이다. 일반적으로 經濟成長은 활발한 生産활동에 의해서 주로 이루어지며 이러한 生産의 增大는 需要의 증가가 前提되어야 한다. 그러나 現在 우리의 內需市場規模가 작아서 國內需要만으로는 不充分하기 때문에 海外的 방대한 市場을 대상으로한 輸出伸張에 의해서 필요한 需要가 創出되어야 한다. 우리의 輸出은 그간 획기적 伸張에도 불구하고 世界市場에서 차지하는 比重이 1%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의 努力如何에 따라서는 크게 增加될 수 있어 앞으로 輸出伸張은 우리 經濟成長의 가장 基本적 原動力이 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開放化는 市場機能을 활성화시키고 經濟效率을 提高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는 開放된 經濟體制下에서는 모든 價格이 歪曲되지 않아 資源配分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非能率的인 산업이나 기업은 自然淘汰되기 때문에 經濟全體의 효율이 極大化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開放化로 시장기능이 活性化되고 경제효율이 提高되면 우리의 對外競爭力도 크게 향상될 것이다. 셋째, 開放化로 經濟全體가 개방적이고 競

爭的으로 이루어지면 모든 國民에게 經濟活動에 參與할 機會를 均등하게 提供케 되어 所得分配 역시 근본적으로 改善될 수 있다.

이같은 理由로 우리 經濟의 開放化는 반드시 必要한 것이며 開放經濟體制의 構築이야말로 先進經濟를 실현시키는 捷徑이 될 것이다. 그러나 現在 우리 經濟는 開放化의 受容態勢를 충분히 갖추지 못한 상태이므로, 開放體制로의 점진적인 移行과 함께 對外競爭力의 강화 그리고 市場機能의 활성화 등 開放化에 대한 對應條件이 시급히 갖추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 經濟의 核心인 産業의 競爭力을 높이기 위해서는 産業 各 部門間的 발전이 서로 均衡을 이룰 수 있도록 產業構造가 改편되어야 한다.

### 2. 開放化의 基本方向

정부는 對外開放化정책의 一環으로 輸入자유화를 적극 推進中에 있다. 이미 禁止性 別途公告品目을 一部 輸入추천품목으로 轉換하였고 특별법에 의한 輸出入제한규정도 段階的으로 완화하여 83년에 80.3%였던 輸入自由化率을 금년에 84.8%, 그리고 88년에는 先進國의 수준인 95.2%까지 擴大시킬 계획이다.

그러나 客觀的으로 輸入자유화가 먼저 이루어져야 할 國內獨寡占 品목들의 自由化率은 전 체평균自由化率보다도 아직도 낮은 水準에 있다. 따라서 앞으로 輸入自由化를 추진함에 있어서 國內產業構造의 改편과 並行하여 産業 各 部門間的 발전이 均衡을 이룰 수 있도록 補完됨으로써 輸入自由化의 이익이 모든 產業에게 고루 分配되어야 하며 一般消費者들에게도 良質의 상품과 低廉한 價格의 혜택이 提供되어야 할 것이다.

외국인 投資部門에 있어서도 開放化가 크게 이루어져 종전에는 「포지티브·시스템」으로 全體產業 855個 業種중 外國人投資가 가능한 業

…資本자유화에 앞서 國內資本市場의 受容태세 확립  
興否가 앞으로 자유화의 成敗를 크게 좌우할 것이므로  
資本市場의 大型化, 資本調達機能의 강화, 그리고 投資  
기술의 과학화 등을 통해 미리 국제화에 對備하여야한  
다.

種이 521個에 불과하였으나 이제는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轉換함으로써 禁止 또는 制限業種  
이 아닌 경우에는 일정한 要件만 갖추게 되면  
자유로이 投資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과  
거에는 國內幼稚산업보호라는 명분아래 外國人  
投資를 극히 制限의으로 許用하여 대부분이 50  
% 以下の 合作投資였으나 앞으로는 동등한 입  
장에서 競爭할 수 있도록 外國人의 投資比率를  
크게 높였으며 投資節次面에서도 대폭 간소화  
시켜 外國人投資에 따른 煩雜性을 排除시켰다.  
外國人의 投資는 우리가 필요한 投資財源을 제  
공한다는 側面以外에도 현재 우리에게 가장 切  
實히 요구되고 있는 새로운 技術을 移轉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外國人投資는 적  
극 장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觀點에서 외국  
인의 投資比率를 보다 높이고 禁止·制限業種의  
數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야 할 것이다.

한 나라의 經濟가 완전히 開放體制로 전환되  
려면 그 나라의 金融 또는 資本市場이 國際化  
되어야 하고 資本 및 外換의 對外去來가 자유  
롭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 理由는 貿易을  
포함한 모든 實物去來가 자유화된 다 하더라도  
外換 및 資本去來가 그렇지 못하면 實物去來의  
자유화는 실제로 큰 意味를 갖기가 어렵기 때문  
이다. 현재 우리의 資本 및 外換去來의 자유화  
는 아직도 극히 초기단계에 있는 실정이다. 이  
는 開放經濟體制로 移行되는 과정에서 불가피  
한 것이기는 하나 우리 經濟가 先進化되기 위해  
선 貿易자유화의 推進과 함께 外換 및 資本自

由化도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國內資本市場의 대외개방은 貿易자유화와 外  
換자유화가 先行된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이 일  
반적이다. 그러나 資本自由化에 앞서 國內資本  
市場의 受容態勢확립如否가 앞으로 자유화의 成  
敗를 크게 좌우할 것이므로 資本市場의 대형화  
資本調達機能의 강화 그리고 投資技術의 과학  
화 등을 통해 미리 국제화에 對備하여야 한다.  
따라서 政府는 受容態勢의 확립은 물론 국내투  
자가를 위한 衡平의인 考慮와 資本市場을 개방  
화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利點을 잘 조화시켜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  
진해야 할 것이다.

外換去來에 있어서도 비록 現在의 모든 규제  
가 실제로 큰 障礙要因으로 작용하고 있지는 않  
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보다 積極的인 對外去來  
의 자유화를 위해 制度改善을 점진적으로 추진  
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우리 경제가 先進國水  
準에 到達하게 되고 對外去來자유화가 완전하  
게 實現되면 우리의 「원」貨도 국제적 交換性을  
갖게 됨으로써 開放社會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혜택을 우리 국민들도 亨有할 수 있게 될 것이  
다.

### III. 開放經濟體制下에서의 企業經營

企業의 成長은 기업환경의 변화와 이에 對處  
할 수 있는 企業經營能力에 의해서 크게 左右된

다. 만일 기업이 급변하는 환경에適應하지 못할 경우 그 企業의 성장은 물론 存續 그 자체도 어렵게 될 것이다.

現在 우리 經濟는 개방체제로 移行되는 과정에 있다. 이러한 過程에서 우리 企業들이 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는 企業의 自律性 確立, 그리고 生産性 向上을 통한 國際競爭力의 提高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우리의 企業成長이 주로 政府의 보호와 각종 支援施策에 의해서 이루어짐으로써 우리 企業들은 경영의 合理化나 生産性 向上을 통한 자율적인 成長을 追求하기 보다는 政府支援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많았다. 그러나 對外開放化가 進展되면 될 수록 과거와 같은 각종 輸入規制措置에 의한 국내산업의 보호나 輸出産業에 대한 금융·稅制上的 각종 支援은 기대하기 어려움으로 企業의 자율성이 빠른 시일내에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모든 經濟運用이 종래의 政府主導방식에서 民間의 創意力과 自律을 바탕으로 한 民間主導방식으로 轉換되어야겠지만 무엇보다도 企業 스스로의 노력이 先行되어 企業의 자율적 成長能力이 축적되어야 할 것이다.

開放體制下에서 企業의 자율적 成長能力은 국제적 企業環境變化에 대한 혁신적 適應力, 즉 企業의 國際競爭力을 의미한다. 빈약한 賦存資源, 협소한 국내시장의 제약 때문에 對外指向의 일 수 밖에 없는 우리나라로서는 최근 先進國에서의 보호무역주의 경향, 저렴한 勞動力을 활용하여 輸出市場에 새로이 參入하려는 後發開發國의 노력 등으로 對外進出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國際經濟環境下에서 對外競爭力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生産性을 향상시키는 것이 唯一한 방법이다.

生産性향상을 위해서는 우선 企業의 경영이 合理化 되어야 한다. 과거 우리의 企業은 정부

의 금융·稅制上的 지원과 慢性的 인플레이下에서 企業내부적인 경영합리화 노력보다는 營業외적인 활동을 통해서 이익을 추구하려는 傾向이 종종 있었다. 이로 인하여 아직도 많은 企業들은 그 規模에 비해 경영방식이 크게 낙후되어 있으며 財務構造는 매우 脆弱한 상태이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 企業들은 經營合理化로 企業내부의 非効率的인 요소들을 하루속히 제거함으로써 生産性을 높여야 할 것이다.

산업이 高度化할 수록 생산성향상에 대한 기술의 寄與度는 더욱 심화된다. 따라서 向後 우리 企業의 生産性 向上은 새로운 기술개발과 혁신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우리의 技術水準이나 技術開發能力은 현재 매우 脆弱한 상태이다. 더우기 우리가 필요로 하는 高度技術의 대부분에 대해서 선진국들은 移轉障壁을 날로 높이고 있는 실정이어서 앞으로 우리 企業들의 자체기술開發能力 培養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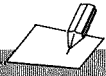
이를 위해서 우선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技術開發投資를 대폭 늘려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 企業의 技術開發投資는 總賣出額중 1% 미만으로 선진국의 2~3%와 比較할 때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새로운 技術開發과 혁신에는 效果가 당장 나타나지 않는 先行投資가 전제되기 때문에 정부 역시 技術開發投資를 계속 높여야함은 물론, 企業 스스로 技術投資를 확대하도록 각종 制度 및 시책을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원만한 勞使協助體制를 구축하여 持續的인 생산성향상을 圖謀하여야 한다. 企業인은 勤勞者를 主從關係라는 前近代的 認識을 버리고 企業성장 同伴者로 인식하여 이들의 복지향상에 노력하고, 근로자는 給與에 상응하는 生産性의 提高에 자주적으로 노력하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勞使協議會 制度를

계속 확대 발전시킴으로써 앞으로 勞使 협의회에서 勞使間의 고충이 효율적으로 해결되고 生産性向上에 대한 인식의 제고는 물론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아울러 제시됨으로써 勞使相互間의 이익이 동시에 추구되어야 할 것이다.

開放體制하에서 우리 기업이 반드시 해야 될 일 중의 하나는 社會的 責任을 지는 것이다. 기업은 원래 그 자체의 經濟的 機能을 수행하는 독립적 個體이기는 하나 오늘날과 같이 복잡한 高度社會의 相互依存性을 도외시키고 獨自的으

로 존립할 수 없으며, 기업이 행하는 意思決定이나 행동은 社會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기업은 그의 意思決定이나 행동의 영향에 대해서 社會的으로 責任을 지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기업은 고용·福祉面에서의 從業員에 대한 責任과 消費者에 대한 責任, 즉 소비자에게 良質의 商品을 廉가로 공급해야 할 責任을 져야 하며, 脫稅·産業公害·부동산투기 등 국민의 指彈을 받는 일을 하지 않음으로써 건전한 企業像이 하루속히 우리 社會에 定立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



### 토막 經濟

#### ● 加速度原理 ●

경제現象 가운데 景氣 순환과 경제성장을 설명하는 방법론으로서 처음에 G. Haberlar가 제기했다. 즉 消費의 일정한 변화가 그 몇 배의 投資의 변화를 가져오게끔 규명하는 것이다. 소비는 일정한 투자의 효과를 乘數的으로 확대시킬 뿐 아니라 誘發 투자를 변동시킨다. 가령 소비 1의 변화는 그 몇배 投資의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所得의 변화는 소비의 변화를, 소비의 변화는 투자의 변화를, 투자의 변화는 소득의 변화를 가져옴으로써 경제변동을 가져온다. 이와 같은 내부적이고 力學的인 원리에 의하여 景氣 순환을 설명하는 것이 加速度原理이다.

그러나 가속도 원리에 의하여 결정되는 投資는 단지 有效 需要 또는 所得을 창출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이는 循環(flow) 개념만으로 설명했을 뿐 蓄積(stock) 개념이 도외시되었다는 약점을 지녔다.

또한 가속도 원리는 투자가 소비의 변동에 유발된다는 것이나 이 관계가 성립되는 데는 기술의 不變 및 완전操業이 전제로 되어야 한다. 이러한 제약에서 탈피하기 위하여 非線型 加速度 係數를 도입하는 방법이 나타나기도 하였으나 加速度 원리를 반대하는 학자들은 利潤原理라고 불리우는 投資理論에 의하여 景氣 순환을 설명하고 있다.